

주목! 이영화 'GP 506'



공포·두려움의 전쟁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알 포인트'로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공수장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을 작품.

군인조차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휴전선 비무장 지대 최전방 경계초소인 GP506에서 소대원 21명중 20명이 몰살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수색대가 파견되지만 유일한 생존자인 강지원 상병은 의식불명인 상태다.

사건은 점점 미궁에 빠지고 노련한 수사관 노성규가 투입되면서 또 다른 생존자인 유정우 중위를 발견하지만 그는 일체 입을 열지 않는다.

영화는 사병 몰살 사건을 조사하는 하룻밤의 수사 현장을 그린 작품으로 시나리오 작가 출신인 공 감독이 직접 각본을 썼다.

탄탄한 연기력의 배우 천호진이 수사관 노성규 역을 맡았으며 드라마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준 조현재, 동성애를 다룬 영화 '후회하지 않아'로 스타덤에 오른 이영훈이 주연을 맡았다. <18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화려한 볼거리 탄탄한 스토리 시대극 인기

천하쟁패 영웅들이 온다



화려한 볼거리와 탄탄한 스토리를 갖춘 시대극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적벽대전' 등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한 중국산(産) 시대물이 대거 선보이는 게 특징. 할리우드 작품으로는 앤 블린의 이야기를 그린 '천일의 스캔들'과 궁정화가 고아가 등장하는 '고아의 유령' 등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한 작품들이 관객들을 찾아왔다.

▲중화권 시대극 열풍  
첫 타이프는 지난 1월말 개봉한 진 가신 감독의 '명장'이 꼽혔다. 이연걸·유덕화·금성주 주연의 전쟁 스캔들 '명장'은 19세기 '태평천국의 난'이 배경인 작품으로 400억원의 제작비와 15만명의 엑스트라가 투입된 대작이다.

3일 개봉한 '삼국지-용의 부활'은 영웅들의 시대를 무협 블록버스터로 재탄생시킨 작품. 제작 기간만 무려 14년이 걸린 '삼국지-용의 부활'은 정밀한 시대 재현을 위해 대규모 성곽 세트 제작했고 수많은 엑스트라에게도 고증을 거친 의상을 입힐 정도로 작품의 완성도에 신경을 썼다.

10일 개봉하는 '연의 황후'는 춘추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황제가 되어야

'삼국지' '연의 황후' '적벽대전' 등 블록버스터  
할리우드 작 '천일의 스캔들' '고아의 유령'도

제작에 참여했으며 주인공인 조자룡 역의 유덕화와 메기류가 함께 호흡을 맞췄다.

'삼국지'를 소재로 한 또 한편의 영화인 '적벽대전'은 모두 4시간 분량으로 7월과 12월 두차례로 나눠 개봉한다. 오우상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적벽대전'은 '삼국지'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대목을 영화로 옮겼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아시아 영화 사상 최고의 제작비인 7천만달러가 투입된 '적벽대전'은 중국 무협영화의 대명사인 와이어 액션 대신 '캐리비안의 해적' '매트릭스'의 제작진이 담당할 컴퓨터 그래픽도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최고의 책략가 제갈량 역을 맡은 금성무를 비롯, 주유 역의 양조위, 조조 역의 장풍위, 손권 역의 장첸 등 아시아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10일 개봉하는 '연의 황후'는 춘추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황제가 되어야

하는 운명을 지닌 공주와 그녀를 사랑했던 대장군, 그리고 공주가 사랑한 전설의 무사 세 남녀의 운명과 사랑을 뛰어넘은 전설같은 신화를 그린 판타지 멜로드.

'천녀유혼', '동방불패'의 감독으로 이름을 날렸고 '영웅', '연인', '황후화' 등 장에도 감독의 영화에서 무술 감독과 미술감독을 맡았던 정소동이 오랜만에 메가폰을 잡았다.

'냉정과 열정 사이' 등을 통해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진해림이 주인공 연비아 역을 맡았으며 여명과 견자단이 전설의 무사 난천과 연비아의 오른팔인 대장군 설호로 출연한다.

▲할리우드, 역사 속 인물을 재현  
나탈리 포트먼, 스칼렛 요한슨, 에릭 바나 등 호화 캐스팅이 눈에 띄는 '천일의 스캔들'은 '천일의 앤'으로 불리는 앤 블린과 역사 속에 감춰진 그녀의 여동생 메리 블린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삼국지-용의 부활'에서 주인공 조자룡역을 맡은 유덕화.

영국 국왕을 사이에 두고 연적이 되고 만 두 자매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그린 '천일의 스캔들'은 특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왕을 쟁취한 앤 블린 역을 맡은 나탈리 포트먼의 연기가 눈길을 끈다.

궁중화가 고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고아의 유령'은 '빠꾸기 동지 위로 날아간 새', '아마데우스'를 만든 밀로스 포먼 작품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고아의 유령'은 18세기 말 종교가 시대를 지배하던 격동의 스페인을 배경으로 고아와 그의 연인 아네스, 아네스를 겁탈한 로렌조 신부 세사람이 끌여가는 이야기다.

나탈리 포트먼이 아네스와 딸 알리시아 역을 맡아 1인 2역을 연기하며 '노인을 위한 나라'에서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스페인의 국민배우 하비에르 바르뎀은 당초 고아 역을 제안 받았으나, 시나리오를 읽은 후 로렌조 신부를 선택, 명연기를 보여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화명	내용
GP 506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경계초소에서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진다.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이	
삼국지: 용의 부활	삼국지의 전설적인 영웅인 조자룡을 주인공으로한 무협 블록버스터.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이	
도래미파슬라시도	'늑대의 유혹' '그놈은 멋있었다'에 이은 귀여이의 동명소설을 영화화 했다. 12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그레이트이스트리	오빠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자 축구선수 가 되기로 결심한다. 12세 이상 관람가.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	
식코	미미를 무어 감독이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부조리와 폐해를 고발했다. 12세 이상 관람가.
콜롬버스(상무)	
미운 오리 새끼와 랙소의 모험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새끼'를 21세기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만들었다. 전체 관람가.
CGV(첨단)	
대스 디파이팅: 어느 미술사의 사랑	미술사와 실용술사의 피할 수 없는 사랑을 그린 서스펜스 로맨스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씨너스 전대	
어 웨이크	수술 도중 일어난 마취 중 각성 때문에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댄 인 러브	최종우를 사춘기 세 딸을 키우는 싱글 데디 이야기. 12세 이상 관람가.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그레이트이스트리	오빠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자 축구선수 가 되기로 결심한다. 12세 이상 관람가.
콜롬버스(하남), CGV(상무)	
속명	한류스타 송승헌, 권상우의 공동 주연한 액션 스릴러 영화.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이	
천일의 스캔들	헨리 8세와 두 자매 사이의 치열한 삼각 관계를 다뤘다.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CGV(첨단)	
워터호스	정 불일 곳 없는 소년과 전설의 괴물의 우정을 그린 판타지 영화.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	
에메이징 그레이스	27세에 국왕에 임성한 윌리엄 월버포스의 개인사와 정치적 활약을 그렸다. 전체 관람가.
콜롬버스(상무), 엔터	
10,000 BC	아생과 문명의 총출을 그린 선사시대 이야기. 15세 이상 관람가.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이	

◆ 위선 412번 ◆ 케이블 TV 광주 42번 72번, 나주 60번, 서남권 59번, 담양 42번

**CBS**

영·흥음 시트지는인

광주 CBS TV

TV강단

TV강단